나라 구한 영웅도 개인은 못 구한다

(사무엘하 20:1~26)

1.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라 구한 영웅도 개인은 못 구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나라구한 영웅도 개인은 못 구한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내린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얼마 되지 않아 베냐민 사람 불량배 세바가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윗이 피난처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다 지파만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지파에게 제사장을 전령으로 보내어 다른 지파와 같이 호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는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지파였으며 또한 다윗이 속하였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는데 본의 아니게 유다지파주의가 발동하도록 부추긴 것이 되어서, 왕을 귀환시키는 절차에 이스라엘 열 지파와 유다지파 간에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 지파들로서는 유다지파가 우대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유다지파는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대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입장이 아주 완고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울 왕의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 불량배 세바가 나서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라가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느라 반란을 진압한 군인들의 입장을 민망하게 만들었고, 진압 이후에 열 지파가 귀환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못 보겠다는 듯이 유다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유다지파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지파주의를 부추기게 되어서 다른 열 지파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게 하는데 이런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사를 등용한 이유도 화평을 위해서였는데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자 왕의 명령이 수행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삼일 동안 모든 지파로부터 국민 병을 모집하여 세바를 진압하라는 것이었는데, 아마사는 요압만큼 통솔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던 모양인지 명령대로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이 반란이 더 커지기 전에 진압하고 싶었기에 아비새에게 정예군을 내주어 진압에 나서도록 합니다. 아비새가 기브온까지 반란군을 추격해 들어가게 되고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도 국민 병을 모집하여 기브온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압이 왕의 명령도 받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군사를 끌고 기브온에 나타나서 인사하는 척하며 아마사를 칼로 찔러죽입니다. 요압은 반란군 진압에 대한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출전하여서 총사령관인 아마사를 죽이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군대를 장악하면서 총사령관자리를 되찾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압이 세바를 진압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요압을 견제하고 요압은 왕의 명령임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총사령관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건이 다윗의 죄와 본의 아닌 유다지파주의를 부추김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일들을 요압이 다 평정하는데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만 여기에서 다윗과 요압의 과실을 따지는 선에서 머무른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악행을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지만, 그 악행들을 종합하여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골리앗이나 사울 왕보다도 우선적인 현실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치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국가형태의 최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성기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에서 봐온 것 같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아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반란군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위해 총사령관으로 세운 아마사를 요압이 암살하고,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요압이나 압살롬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 몇 사람에게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 왕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선민의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는 있지만 개인을 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해서 개인이 구원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어질고 공평한 왕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먹고 산다고 해서 개인이 구원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구원은 물질적인 외부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된 것 같은 태평성대의 상황에서 아직도 부족함을 일깨우시는데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요압의 불복종 등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윗같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바의 반란 사건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으로 유다지파주의를 부추기는 행동으로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까지도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시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도 근동지방의 기근으로부터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주의적인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은 유다 지파와 열 지파의 갈등이었고 이윽고 요압에 의해서 진압되었지만, 이러한 갈등은 이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실제로 영구적인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을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우선적 현실로 여기고 있는데, 가족과 측근과 백성들에게서 그러한 신앙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모두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시며 선민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시는데 모순돼 보입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범위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유다지파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유다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분열은 반란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나타난 결과들까지도 구원사적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다윗 같은 신앙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축소 지향적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북 왕국 이스라엘은 BC722년에 앗수르에 망하고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앗수르의 이민정책에 의해 피가 섞여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유다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예수님 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선민의 영역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개인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표 했던 메시아는 당신께서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인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

다. 예수님 당시에 선민이라고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내용적 선민은 예수님 한분뿐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선민 나라의 역사와 성군 다윗의 치세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과 삶의 안정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돈 건강 권력 가족 명예 사업 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민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 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숨겨져 있던 선민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란에 흔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다윗 정권의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행정부의 관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왕이 임명한 조직 내에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이들은 선민 개개인이 하나님을 이 세상 것들보다 먼저 현실로 여기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는 이야기 이후로는 성막이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오히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전령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왕이 귀환하는 절차에 있어서 유다가 앞서서 행하라는 언질을 줄 때도 제사장들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다윗 왕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모든 신하들과 백성 개개인이 갖도록 해주었어야 했는데 왕의 전령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담아내시기 위해서 이 혼란스러운 선민의 범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시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행한 일이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자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마지막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남북 왕국으로 분열시대의 왕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 신하들이 다윗의 요압 때처럼 불복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듯 다윗이 측근들에게조차도 여호와 신앙을 심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자가 개인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의 일을 아브라함의 혈통 상 선민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 필요한 혈통 상 선민의 역할로 계속 축소시켜 나가십니다. 유다지파 중에서도 요셉 한 사람으로 축소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

님의 십자가와 승천사건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선민이 확대 지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예수님을 향해 줄어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확대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도 이 다윗시대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윗시대로부터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나에게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등장시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육체적 선민으로 정하시고 그 범위를 축소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 성군 다윗의 치세 아래에서도 혼란스러웠던 선민의 나라의 상황은 전적으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 한 사람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